사 설

민족 하나되기 '거리탁발'

조계종이 35년만에 종단 차원의 대대적인 탁발 행사를 4일까지 벌이고 있다. 이웃과 민족을 위한 '자비의 탁발'은 지난해말 총무원이 밝힌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성금 모금 사업'의 일환이다.

이 행사는 북한동포와 중국동포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민족 공동체 운동이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수백여 스님이 주도하는 이 탁발행사는 조계사에서 선포식을 가졌고, 이어 전국 5대 도시에서 가두 탁발 행진과 불자연예인의 모금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탑골공원에서는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문과 이웃과 민족을 위한 발원문이 낭독돼 이 시대의 모순과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스님들의 1천배례가 장엄하게 펼쳐졌다.

이번 '자비의 탁발' 행사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모두의 가슴 속에 일렁이는 자비의 불꽃이 하나가 되어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아리칠 때 계급과 빈부와 이념의 갈등이 홍로(紅爐)의 일점설(一點雪)로 녹을 수 있다는 발원이 담겨있다. 그것은 일체원융의 무아법계에서 함께 노니는 불국토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탁발은 그동안 종단차원에서 금지돼 왔다. 조계종이 통합종단을 출범하던 지난 62년 종교를 등에 업은 사이비 탁발의 횡행을 막아보자는 고심의 결단으로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 조치로 인해 잃은 것도 적지 않다. 그 첫째는 청빈과 금욕이라는 수행자의 브라마챠리야(梵行)를 단련하는 장을 걷어버린 것이고, 둘째는 수행자의 행동반경을 난야(蘭若)에 한정함으로써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자비행의 기회를 축소시켜 버린 것이다.

탁발을 통해 수행자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욕망을 줄이는 법, 그리고 분노와 슬픔을 자제하는 법을 배운다. 세속적 이득에 대한 탁발승의 무관심, 그들의 고요하고 위엄있는 행동거지는 비신도들을 불교에 귀의케 하는 한편, 기존의 신도들의 신심을 더욱 두텁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고귀한 탁발의 전통은 역설적이게도 대승의 발전과 함께 쇠퇴한다. 소승과는 달리 대승은 탁발을 거의 포기하고 그것이 지닌 이타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강조하는데 힘썼다.

아상가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 해명하는 '옛적의 가난을 내던진 이유'는 대단히 고상하고 이타적이지만, 이는 요즘 넉넉한 부를 쌓고 지내는 기독교인들의 변명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인도밖에서 탁발행의 전통은 이어지지 못했다. 당대(唐代)에 그 옛날의 탁발을 부활시키고 계율의 엄격한 실행을 요구하는 종파, 즉 율종이 창건된 적이 있었지만 곧 쇠락하고 말았다.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통적 의미에서의 탁발은 찾을 길이 없다.

아무래도 탁발은 그 옛날 초기불교의 빛나는 광휘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와 거대조직의 시대에도 탁발은 여전히 숨겨져 있는 보석이다. 상구보리(上求菩提)의 자리적(自利的) 측면에서의 탁발은 쇠퇴했지만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이타적(利他的) 방편으로서의 탁발은 앞으로 무궁무진 개발해야할 불교의 활로이다. 그것은 미래 불교가 기획하고 있는 불교문화행사로서도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대중의 종교적 귀의와 관용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 탁발은 제도적 정비와 교화적 장치를 통해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탁발 자체를 언제까지 봉쇄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번의 민족 대화합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행사가 탁발의 가능성을 다시금 시험하고 교육과 수행차원에서 재발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열린마당

사찰재정 공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지선)가 최근 계간지 〈화두와 실천〉(발행인 효림) 겨울호에 사찰의 재정과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교구본사로서는 처음있는 일로, 사찰 공개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양사는 '운영보고'를 통해 96년의 수입현황을 밝히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사찰의 열린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무소유정신 생활화…本寺부터 솔선

지선 〈백양사 주지〉

사찰재산은 어느 누구의 개인 재산일 수 없다. 비록 당해 사찰의 주지라 하더라도 주지는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일 뿐이다. 즉, 사찰재산은 불교종단의 재산이며, 나아가서는 전 불교도의 재산이다. 따라서 사원의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집행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개돼야 한다.

백양사의 이번 재정공개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출발이며, 더 나아가 개혁의 과제를 실천하고 모범을 창출, 종교운동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또 승가의 청정함과 무소유정신의 생활화, 자기 수행력을 바탕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불교계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더불어 극히 일부의 금품거래와 비리로 인한 불신을 없애고 신도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물론 사찰재정공개에 따른 서류관리의 번거로움과 책임감의 결여, 신도들의 반대, 지속성여부 등으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원경제의 투명성과 삼보정재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공개돼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다. 전면적인 재정공개가 어렵다면 신도회에 만큼은 공개해 사찰재정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정공개는 우선 본사차원에서 솔선수범해 개사찰에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신심과 공심에서 우러나와 절 살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함이 중요하다.

재가불자 운영 참여…승속 신뢰 기여

법타 〈은해사 주지〉

사찰재정공개는 획기적인 불교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사찰의 소임자들은 과거 가람수호 차원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사찰경영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밝히고, 포교와 인재양성 사회복지를 위한 재투자에 아낌없이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찰의 재정과 운영의 공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소액 및 객승의 여비지출에 따른 영수증 처리의 어려움, 소임자들간의 믿음 결여 등을 고려하다보면 난관도 많다.

특히 사찰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경우, 분담금이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철두철미한 사찰재정공개를 통해 신도들을 포교하고, 진솔한 전법을 통해 신도들로부터 보시금을 헌납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이미 시대의 흐름이며, 종교인으로서 현대인들에게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승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신도법 사찰운영위원회법 등 종법에 따르면, 신도들의 사찰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승가와 재가 사이의 신뢰를 쌓고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위상을 높이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도회의 구성, 나아가 올바른 불교관을 지닌 신도상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승가와 재가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부분이다.

공개운영 현황

금강정사등 일부사찰 시행 '긍정반응'
조계종 재정공개·신도참여 등 명문화

이미 몇몇 사찰은 공개운영을 하고 있다. 삼선포교원(원장 지광), 강남포교원(원장 성렬),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벽암), 파주 보광사(주지 효림),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 그리고 태고종 소속의 관악산 성주암(주지 종연) 또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와 서울상계동의 사천왕사(주지 성덕) 등이 재정을 공개하고 사찰운영에 신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금강정사의 경우, 매월 1회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운영현황을 공개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사찰소임자와 구역별모임인 법등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관음사는 이 사찰에서 운영하는 영남불교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각 기수별모임 대표 20여명이 사찰살림을 의논하고 행사를 집행하고 있다. 교육된 신도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사찰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신도는 "직접 사찰살림을 맡다보니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이 느껴진다"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주암도 사찰의 재정현황을 월간 〈불교〉에 공개하고 있다. 보광사는 종무실과 별도로 재가자가 참여하는 종무기획실을 설치, 이곳에서 사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94년 개혁회의에서 개정한 종헌과 신도법 사찰운영위원회법 등 관련 종법에 사찰의 운영현황과 재정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종헌 제124조에는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도법에는 '재적사찰과 종단의 유지운영에 참여할 권리'(제5조)를 부여하고 있다.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공영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사찰운영의 능률화, 공개화, 공정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찰운영위원회법은 당해사찰의 소임승려와 신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찰의 예산 결산과 각종 불사와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토록 하고 있다. 이는 종헌 제8조에 규정한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서 구성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한편 중앙신도회 창립을 앞두고 교구신도회를 비롯해 각 사찰신도회 구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신도의 사찰운영 참여, 이를 통한 재정공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어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대한민국 국민은 무슨 업을 지었길래 번번히 고개 숙이는 대통령을 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국민이 원한다면…"

초대대통령 이승만박사는 떨리는 음성으로 '국민'이란 말을 전제하면서 하야했다.

내각책임제에서의 윤보선대통령은 '4월의 꽃'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청와대생활을 짧게 마감했다. 박정희대통령은 총을 맞았다. 과도기의 최규하대통령. 침묵하는 자신에게 국민이 무얼 원하는지 아마 알 것이다.

전두환대통령은 어떠했나. 8년 집권을 마치고 연희동 사저로 돌아왔으나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권력의 뒷맛은 쓰다못해 아렸다.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나라 밖으로 나가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가라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

그는 국민앞에 무조건 항복하고 부처님 품을 찾았다. '백담사 유배'로도 모자랐는가, 다시 수인(囚人)이 되었다.

뒤를 이은 노태우대통령도 임기를 마쳤으나 국민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교도소로 갔다. 이 무슨 불운의 연속인가. 역대 대통령들의 이같은 수난은 이 나라 반세기 역사를 대변한다.

그래서인가 4년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김영삼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유야 어디있든 김영삼대통령도 2월25일 '대국민 사과담화'를 발표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직을 맡은지 만4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날 저는 참으로 괴롭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의 10개월 남짓한 임기가 지나면 우리는 또 새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잘 뽑아야겠다. 뽑힌 대통령도 잘 해야한다. 다시는 이 나라에 고개 숙이는 대통령이 없도록.

성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도 아쇼카왕의 말을 들어보자.

"관리는 고위·하위직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범법하기 쉬운 자들을 일깨워 줘야한다."

이말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현대만평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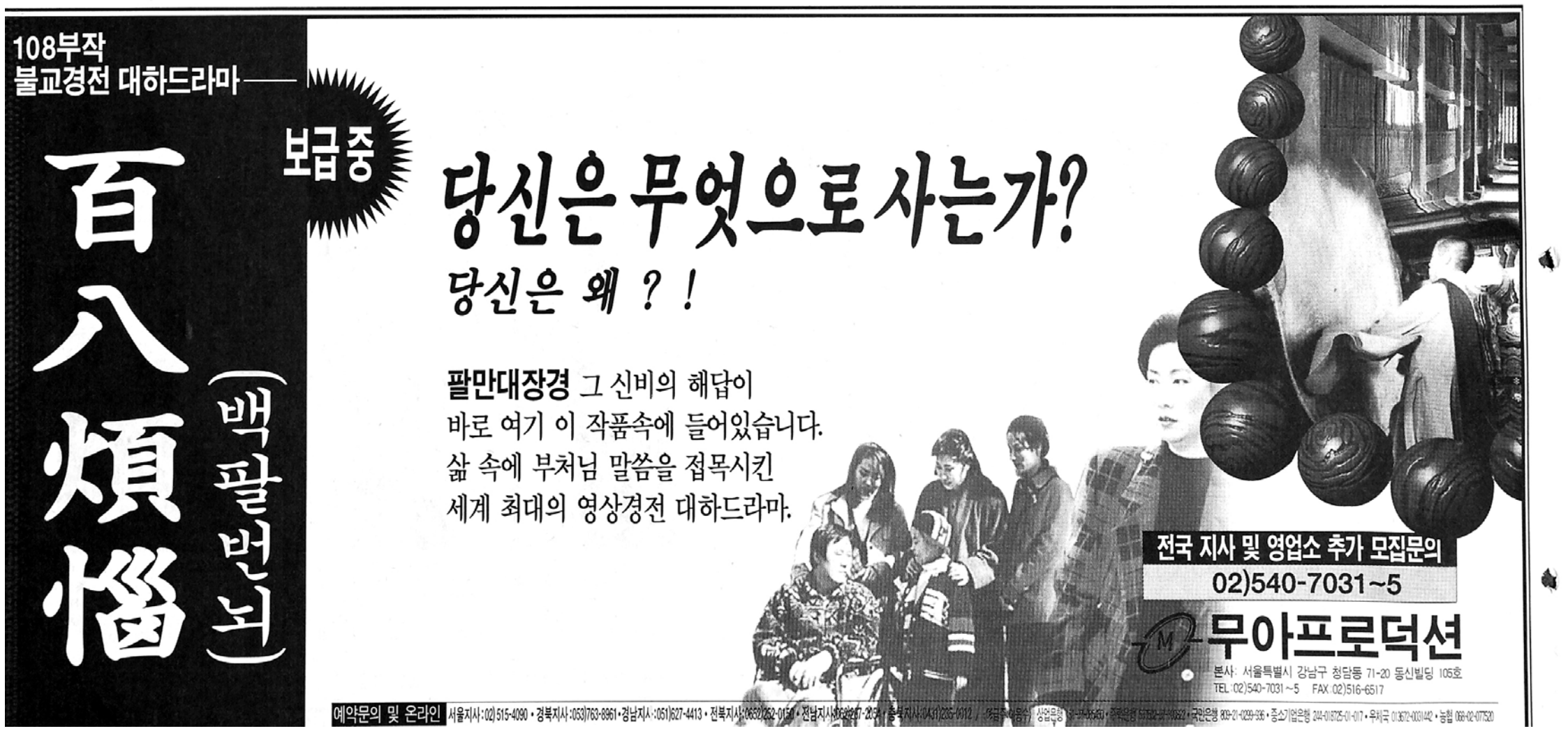
북한동포 돕기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0691

심장병·안면기형·백내장
환자가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사회

작은 정성일지라도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 향기 이웃을 감동시킬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헌혈이나 감로심장회 회원이 내는 회비가 고통속에 쓰러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로심장회와 함께 사회 봉사에 동참합시다.
나와 이웃이 삶을 함께 나누는 감로심장회를 통해 사회복지 증진의 꽃을 피웁시다.

※ 도움을 기다립니다.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사단법인 감로심장회
T. 0591)749-0106
F. 0591)747-0107